



복수초 눈을 들고 꽃을 피운다 하여 실연화(失戀花)·얼음꽃 등으로 불리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2-4월에 노란색 꽃을 피운다.



얼레지 가재무릇이라고 불리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전국의 산에 널리 분포하여 숲속 그늘이나 고산에 주로 자란다. 4-6월에 자주색 꽃을 피운다.



노루귀 파설초(破雪草)·설할초(雪寒草)라고도 불리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유독성 풀이다. 이른 봄 눈을 들고 흰색과 자주색의 꽃을 피운다. 꽃대가 잎보다 먼저 나오고 꽃받침에 노루의 귀털같은 털이 많아서 노루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눈부신 초록대간에 색색의 들꽃 향연



< 34 >

답목재 → 대관령

신 포도를 떠올리면 입 속에 힘이 고이듯, 신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콧속까지 파란 물이 드는 것 같다. 맑은 그냥 딸일 뿐 실제의 초록이 깃들여 있을 리 없지만, '신록'이라는 말의 정서적 환기력은 실제에 맞닿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런 종류의 말은 단순한 부호가 아니다. 어긋남 없이 사물과 조응한다. 지극한 아름다움은 참됨과 통하는 것 과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흔히 4월과 5월의 푸르름을 신록이라 한다. '싱그러운' 따위의 수식은 오히려 군더더기다. 작렬하는 태양 아래서 압도적 기운을 발산하는 여름의 짙푸름과 달리 평범해, 따라 들

들고 싶은 푸르름이다. 꽃 같은 푸르름이다. 지구가 초록별이라는 실감도 머뭇간다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발산하는 초록빛의 정체가 '빨'이라는 사실은 접어 두자. 이런 때는 굳이 산을 오르지 않아도 먼 눈길로 산빛을 더듬기만 해도, 산과 나는 하나가 된다. '내 나이 스무살 하도 예뻐서 꾸르는 물에도 입맞춤 했네'라고 노래한 객주 시인마냥 산빛과 눈맞춤 하기 딱 좋은 때다.

강릉시 성산면에서 황병산 대관령 버스에서 몸을 실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학생들과 장보러 갔다 돌아오는 대거리 사 람들과 함께다. 서 있는 친구를 끌어당겨 조그마한 공둥이를 한쪽으로 밀치고 자리를 나누는 초등학교 아이, 손주 목으로 보이는 과자랑 달걀 꾸러미를 보듬어안은 할머니, 아침에 봤을 일곱인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는 아주머니들. 결국 도시의 버스 안에서 볼 수 없는 정경들이다. 오랫동안 느끼게 흐르는 시간을 만났다. 답목재 680m에서 몸을 부린다. 이곳에서 서부터는 또 다른 속도의 시간이 흐를 것이다. 사람의 보폭과 신의 높낮이가, 갓발과 바람의 관계로 공명할 수 있기를 꿈꾸어 본다. 낚시낚기 기운은 햇살을 이어 가득 안고 대간을 오른다. 산행 들머리는 산신각 오른 쪽으로 돌아오르는 입도다. 이내 제법 근사한 소나무 숲이 나타난다.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햇살이 푸른 비늘처럼 반짝인다. 이어서 드문드문 무릎을 심어 놓은 고행지 채소밭이 나타난다. 길 한편으로는 비료

포대나 농약병, 폐비닐이 나뒹굴고 있다. 남루한 오솔의 농촌 현실을 보는 것 같다. 차라리 육지거리라도 내뺄을 수 있다면 속이라도 후련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다. 뭐라 공시렁거려봐도 내 눈에 침 뱉기일 뿐인, 뻔한 우리내 살림살이의 어두운 그림자다. 30년쯤 오르니 한우목장이 나타난다. 대간의 마루까지 점명한 목장 울타리를 끼고 서북 쪽으로 솟구치며 휘돌아오르니 동쪽으로 서북봉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멋들어진 가지를 늘어뜨린 아름들이 소나무 아래에 몸을 누인다. 대문도 울타리도 없는 집이니 뽕시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일 것이다. 얼은 안개와 황사에 가려진 아람이 열린다. 가까운 산도 먼산인 양 희미한 하늘금을 보여 준다. 실눈을 뜨고 모자이크 벽화를 보는 기분이다. 색다른 느낌이다. 이렇듯 모든 사물은

듯이 걸을 수는 없다. 수줍은 듯 피어오르는 들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봄 산행만큼 해할을 부리기 좋은 때도 없다. 쉬어가기 좋다면 김작 불꽃에 잠기기도 하며 한껏 계를 풀을 피워도 좋은 때가 지금이다. 고루포기산을 한참 허리를 낮춘 곳에서 복수초를 만난다. 쪼그리고 앉아 요조조를 들여본다. 고루포기산에서 능경봉까지는 오르내림이 잦지만 요즘처럼 들꽃이 고운 때는 그리 지루하지 않다. 왼쪽(서북) 방향으로 시야가 열리는 곳에서는 황계와 용령스키장, 고원을 가로지르는 듯한 영동고속도로가 보인다. 동두천한 황국의 능경봉(1231m)은 보기와는 달리 상당한 위험과 기쁨을 지니고 있다. 한참동안 키를 높이므로 다가사기에도 민만치 않다.

수줍은듯 곱게 핀 복수초 눈인사 능경봉~황병산 능선 빼어난 눈맛

바리보는 태도에 따라 새물게 인식된다. 황사 를 타박만 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물의 존재(眞體)를 보는 눈을 돌일이다. 차츰 키를 높이는 능선을 따라 오르니 늘 선한 청나무 숲 아래로, 무리지어 피어난 얼레지가 날렵하게 치켜올린 꽃잎을 하늘거리고 있다. 한 동안 그 꽃잎에 넋을 다 주고 만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니 고루포기산(1238.3m)이 눈앞이다. 정상으로 송전탑이 지나는 계 불령사남긴 하지만 조망은 아주 빼어나다. 그곳한 눈으로 바라보면 능경봉에서부터 대관령과 흥병산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내 기억의 공간에 담긴 그 모습은 지금도 눈앞인 듯 생생하다. 특히 황소의 잔등처럼 순하다 순하게 흐르는 황병산 언저리의 군더더기 없는 능선은, 산에 드는 즐거움을 구름 위로 동실 띄워줄린다. 고루포기산을 내려서는 길은 저절로 전 걸음을 만드는 내리막길이다. 그렇다고 뒤

능경봉에서는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국립지리원의 지도에도 한자 표기는 보이지 않지만, 강릉을 바라보기에 좋은 곳이라 하여 능경(陵影)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을까 싶다. 맑은 날씨가면 경포호와 동해바다도 눈에 넣을 수 있는 봉우리다. 능경봉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아흔아홉구비를 휘돌아오르는 대관령이다. 천천히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향 그리움이 절절히 배어나는 사립당 신씨의 노래를 읊조려 본다. 산행할 내 고향 천리야 언만 지나거나 고향에도 돌아가고야 한송정 가에는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톱에 헤쳐락모지락 언덕내 내 고향 돌아갈거나



<능경봉 오름길. 넓은 산이라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화사한 들꽃만으로도 봄을 만끽하게 한다.



글=윤제희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辛巳年五月五日巳時立柱上梁

삼도(參圖)작품은 상향식에 근거하여 연구한 작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세집 3년이 어렵다 생각하고 종교와 중단을 초월하여 누구나 이렇게 상향식을 하여왔습니다. 소승은 여기에 근거 호도를 더 넣어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개발한 작품으로 혼자 소장하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워 서면으로 공개하는 것이며, 이것은 물론 때문이 아니고 다 같이 복록을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종교와 중단을 초월하여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도(參圖)는 첫째 용도(龍圖)는 재수를 뜻하고 호도(虎圖)는 모든 재난을 막아주며 구도(龜圖)는 수명을 뜻합니다. 소승이 직접 연구 개발하여 점안기도를 올렸으니 안심하시고 가정이나 공장 사무실, 특히 이사할때, 개업 그리고 대소 각종 영업장소에 사용하시면 그 효과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이 사용하여 소원성취 하옵소서. 소승이 직접 수작업하여 일년전부터 1개당 20만원씩 받아 왔으나 이번 홍보기간에는 12만원 특별가로 책정하였습니다. 과 사양 주저 소님이나 불교 상회나 단체 주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촬영사 만봉 촬영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 대구은행 190-08-119647-001 손석익

* 원목금색택 작품은 30만원 입니다 *

주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 1리 127-39 전화 : 054-973-5863, 011-810-5863, 054-975-2152, 011-504-2188

參圖龍虎龜作品

좌에서본

중앙에서

우에서본

작자 크기 가로 40cm X 세로 50cm

촬영사 만봉 작품